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하여

홍 규 덕 | 숙명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수업은 학생들과 교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따라서 수업에 임하는 교수들의 자세는 결국 수업의 성패 및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수업에 임하는 교수는 자신의 작품을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고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화 감독이나 TV 프로의 프로듀서와 같이 수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때로는 젊은 생명들을 책임지는 일선 소대장과 같이 엄격한 규율과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동시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전곡의 연주가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며, 학생들이 낙심하거나 의욕을 잃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학습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기를 북돋아 주는 운동 코치의 역할도 해야 한다. 결국 수업은 종합적인 예술의 영역임에 틀림없다.

완벽한 수업이란 어쩌면 불가능한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도움이 됐던 경험을 지식 공유의 차원에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수업은 상세한 강의 계획서로부터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만나기 전에 수업에 대한 전략이 확고히 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첫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

에게 나누어 주는 강의 계획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교육 철학과 목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책들을 읽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종합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떠한 중요한 질문들을 특정 주제마다 답할 수 있어야 하는지조차 상세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학부에서 다루는 국제정치학이나 한국외교정책론, 미국외교정책론, 전쟁과 평화 등의 과목에서는 A4 5장에서 8장 이상 분량의 상세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혹자는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참고 문헌들을 전부 다룰 수 없는 이상 자세한 강의 계획서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읽어야 될 양을 교수 스스로 한정시켜 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생들이 해당 주제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실감 제고를 위한 전문가 활용과 학술 대회 참석 권유

국제정치학 분야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교통상부의 중견 간부

나 그 분야에 정통한 해당 전문가들을 수업에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학기 수업에는 최영진 외교통상부 정책 기획실장과 김원수 외교통상부 ASEM 준비단 총괄 부장이 PKO 연혁과 유엔 개혁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특강을 각각 해 주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이번 학기에도 외부 강사의 특강을 준비 중이다. 대북 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북한의 KEDO 본부에서 2년간 직접 체류한 경험이 있는 이현주 외교통상부 공보관을 초대하여 학생들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고, 한·일 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주일 대사로 최근까지 근무했던 김석규 대사를 초빙해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의 주요 학술 세미나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게 하여 실제로 교수들의 발표 모습과 토론 방법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논의가 결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나 국제 기구나 주요 NGO들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실제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현실감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과제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약 25개 정도의 puzzle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 5개 정도를 제출하되 발표를 자청하는 사람은 회수만큼 제외한다.

다양한 교재 활용을 유도하여 학습에의 흥미 유발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신선한 논쟁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출처를 제공하고 또한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가들과의 면담이나 특강을 주선했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전문가들이나 전문 집단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예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결국 수업은 교수 혼자만의 준비보다는 양자가 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교재에 관한 한 가급적 신선한 정보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새로 출간된 신간 소개나 논문 소개들을 정기적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전 같이 어느 특정한 한두 개의 교과서나 교재에 한정시키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딱딱하고 어려운 원전에 접할 능력이 없는 학부생들에게는 역사 소설이나 KBS 역사 스페셜과 같은 TV 다큐멘터리, 영화 등도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이번 학기 한국의외교정책론에서는 최근 출간된 유현종의 역사 소설 『대제국 고구려』 전6권과 박혁문의 역사 소설 『팔기군』 전3권 그리고 한명기의 역사 소설 『광해군』을 학생들에게 읽게 할 계획이다. 역사 소설은 역사의 정확한 기록이 아니니 만큼, 교재로 삼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과 역사적 교훈을 찾아내는 창의적 해석이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 소설을 통해 학생들이 과거사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당시 고구려가 처한 상황에서 외교적 대안이 가능했는지, 또한 조선 중기 광해군의 외교적 선택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왜 실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게끔 만
들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지정학적 특성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우선 그들의 주과수에 맞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후, 그들이 훗날 보다 정확한 역사적 기원과
문헌을 고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교수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작은 코멘트 하나

학생들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만드는 가장 좋
은 방법 중의 하나는 힘들더라도 학생들이 제출한 과
제물에 대해 일일이 정성어린 코멘트(comment)를
달아 빠른 시간 내에 돌려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작
성한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피드백(feed back)을 주
는 행위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한 학습 동기를 갖게 하
는 데는 사실상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다
만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
서는 교수들이 최소 한 학기에 3~4번 정도 이와 같
은 작업을 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에는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교수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일종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며, 교수와 학생간의 일 대 일 관계의
신뢰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다. 필자는 가끔적 중간
고사의 답안지도 돌려 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만회하기 위
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수는 학생의 거울, 세심한 배려와 수신의 자세 필요

이미 지적한 대로 수업에 임하는 교수의 자세가 중
요한 이유는 교수들이야말로 학생들의 거울이기 때
문이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마저도 학생
들은 교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
에서 세심한 배려와 수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숨가쁘
게 돌아가는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
여 교육의 근본이 바뀌지는 않는다. 교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국제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매사에 숭선 수범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는 더 이상 자신의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을 전
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학문하는 자세뿐만이 아
니라 인생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도전하는 모습마저
도 자신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
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수업 시간을 통하여 후학들에게 대인 관계,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도리나 선후배간의 화합을 강
조하고, 학생들간의 신뢰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북돋아 주려 노력하는 편이
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감 부족이 더욱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
다. 여성으로서 비전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격려
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쳐 주기 위해서
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발표 기
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발표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뿐더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다 해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남
에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따라서 학생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간

“

학생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세심한 개별 지도를 해 줄 때
학생들은 교수를 신뢰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된다.

”

결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수업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열린 수업을 통한 교류 활성화

숙대의 경우, 현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작년에 4차례, 금년에 1차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예상 외의 좋은 결과를 놓고 있다. 또한 매학기 기말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육사나 고대와의 토론은 유사 과목 담당 교수들과의 합의 하에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를 미리 정한 후, 학생들 스스로 토론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결국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습 의욕을 향상시키고 행사 진행을 통해 추진력과 협동 정신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간의 많은 흥미와 추억을 남기는 수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주제에 대한 접근 과정을 거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다.

특별 활동도 수업의 연장, 전방위적 교육

이외에도 필자의 경우 별도로 토론반을 조직하여 평상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스터디 그룹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교수는 이러한 모든 특별 활동의 중심에 서서 학생들에 대한 인적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세심한 개별 지도를 해 줄 때 학생들은 교수를 신뢰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각종 국제 회의나 공식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프레스센터의 보조 요원이나 ASEM 국제 회의, IOC 총회 등 학생들이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모의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나 외교통상부 후원의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 등에 참가를 권유하고, 미국 Mills College에서 행하는 국제 대학생 리더십 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는 더욱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은 결코 교실에서만 행해져서는 안 되며, 특별 활동과 다양한 학술 행사들을 통해 소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다.

교수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결국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주고 또한 만들어 주는 일은 교수들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1세기에는 교수가 단순히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는 선에서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학생들을 혼자 가르칠 수 없으며 또한 큰 의미가 없다. 즉,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는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연계하는 창의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열의를 갖고 일하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그 중간 고리 역할을 교수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교수들이 자신들에 대해 갖는 열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확인시키거나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정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결국 교수들은 수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무관심과 자신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는 제자들에게 자칫 무관심으로 비취지고, 수업이 질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과 신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 수업을 위한 준비

수업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떤 분야를 더 찾아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수업을 자신감 있게 주도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좀더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해 감으로써 결코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며, 명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수업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강의에 임하기에 앞서 다만 5분간만이라도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내용을 점검한 후 강의에 들어간다면 강의의 질이 완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결국 자신감 있는 강의를 담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명확치 않은 질문이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관대하게 학생들을 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칭찬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역시 무안을 주거나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쉽게 문제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보조 자료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보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최근 진행되는 사태들이나 변화들의 의미를 소개해 주고 중요한 기사나 칼럼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참고 자료를 수시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수가 챙겨 주는 새로운 자료들을 통하여 그만큼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의 헤아림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료의 중요성에 눈 뜨게 될 수 있

으며, 무심코 지나친 자료들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교수는 공부에 훌륭한 습관의 연장임을 스스로 이해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가서기의 과제

마지막으로 교수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학생들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학생들 뒤에 남아 있는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다.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이 주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권장하고 격려하는 것은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일 것이다. 소극적인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개서를 쓰게 하거나 면담 등을 요구하여 그들의 생각과 문제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어쩌면 그들의 미래를 바꿔 놓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남을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작은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Nothing Venture, Nothing Gain이라는 모토를 강의 계획서에 항상 적어 놓고 있는 필자로서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발로 뚫을 파는 만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수업에 임한다. **박**

홍규덕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석의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대외협력실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 기구 및 평화·인권·환경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유엔국제학회(KACUNS) 석의 이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대외정책론」(박영사, 1998), 「미국외교정책론 : 이론과 실제」(박영사, 1998), 「신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형성」(세종연구소, 1997), 「97정치 대전망」(앞선책, 1997), 「북한의외교정책론」(서울프레스, 1995) 등이 있다.